

1. 예수의 부활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건가요?

예수의 부활은 2천 년 전 제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면 삶이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첫 부활절의 모습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조차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부활 이후 제자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고, 그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내 운동을 막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내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사랑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죽기까지 한 내 방법이 옳았음을 아버지께서 입증하셨다. 이제 그들은 너희와 싸울 것이다.” 즉, 부활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황이 잘 풀릴 것”이라는 위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하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기심, 죄, 두려움, 탐욕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으로 나아가는 희망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그들에게 이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을 초월하는 더 큰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바로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힘과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누르는 도구였고, 방패와 인장에 새겨진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정복이나 자랑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에 대해 죽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3-25절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리라.” 즉, 부활의 희망은 삶의 안전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

아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정, 사회에서 두려움과 불안, 실패와 좌절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희망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자기중심적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나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과 희생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삶을 초월하는 희망을 붙드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삶의 두려움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듯, 우리 역시 부활의 희망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선택하라. 삶의 안전과 평안만을 쫓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부활의 길을 걸어라. 네 삶을 넘어서는 그 용기 속에서 진정한 부활이 시작된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글에서 말하는 부활의 희망은 “삶의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나요?
→ _____
-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부활이 희망이 되었을까요?
→ _____
- 요한복음 12장 23-25절에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영생을 보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 _____
- 내 욕심이나 편안함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사랑, 정의, 봉사 등의 순간이 있었나요?
→ _____
- 제자들이 위험과 희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_____

- 부활의 희망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신실함을 선택하는 힘을 줍니다. 지금 내 삶에서 위험이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 _____

- 두려움이나 실패, 미움, 경쟁심 때문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요?

→ _____

- 나의 '작은 죽음'("이기적 욕심, 두려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면, 주변 사람이나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기도문을 부분별로 나누어 한 사람씩 읽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실패와 좌절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때로 안전과 평안만을 좇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를 잃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두려움, 편안함을 쫓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죽음과 절망 앞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모든 행동과 말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